

〈일반논문〉

## 영국의 작물 보고서 편찬과 그 활용, 1795-1801

강 명 수 \*

〈목차〉

- I. 들어가며
- II. 위기의 1790년대
- III. 작물 조사 사업과 그 결과
- IV. 1801년 작물 보고서 활용 방안과 그 유용성 - 체셔(Cheshire)의 사례 -
- V.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1795년부터 1801년 사이 작물 보고서가 편찬된 배경과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방식에 대해 서술하고 나아가 사료로서 이 보고서가 가지는 유용함과 높은 활용도를 논증한다. 18세기 후반에 영국은 1795년과 1800년 두 차례의 치명적인 곡물 수급 위기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한 곡물 가격의 급등과 전국적인 혼란이 야기되었다. 사회적 격동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스피햄랜드 시스템과 같은 구호 조치를 시행했고 중앙 정부는 포괄적인 입법 개혁을 추진했다. 이와 더불어 착수되었던 것이 바로 전국단위의 작물 조사 사업과 보고서 발행이었다. 1795년부터 1801년까지 중앙 정부는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조사 사업과 보고서 편찬 작업을 진행했다. 그 중 1801년 작물 보고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체셔의 사례는 이 보고서의 정확성과 지역 역사 연구에 활용 가능한 장

\*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사학과 박사후과정

재력을 확인시켜준다. 이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된 곡물 경작지 비율은 분명 체셔의 지질학적 분포와 상관성이 있다. 이는 곧 이 보고서의 실증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곡물 경작과 지질학적 특징이 부합하지 않는 일부 예외적인 지역도 발견된다. 이러한 지역의 존재는 보고서 데이터의 단순 오류라기보다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맥락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1801년 보고서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농업 패턴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작물 보고서, 곡물 위기, 곡물가 상승, 사회 불안, 체셔

---

## I. 들어가며

만약 [전하의 충직한 심복들이] 경작지 면적에 관한 연간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에 극히 이로운 일인 것으로 이 보고서가 인클로저 및 기타 사안들과 관련하여 의회가 만든 조항들이 농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데 최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sup>1)</sup>

1801년 영국의 내무 장관 펠햄경(Lord Pelham)은 위와 같이 진술하였

---

1) Home Office Domestic Entry Book, 1801, The National Archives, HO 43/13. 재인용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during the Napoleonic Wars", *Agricultural History Review*, Vol. 1, 1953, p. 40.

다. 그해 영국은 1795-6년에 이어 10년 새 두 번째 곡물 부족과 곡물가 폭등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사회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펠햄경의 진술은 결국 이러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 당시의 농업 실상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극복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미 1760년대부터 영국 의회에서는 국력과 국부의 부침 그리고 사회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가의 등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농업은 세부적인 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sup>2)</sup> 1795년의 흉작으로 인한 위기감은 실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고 정부가 주도한 전국적 작물 조사 사업이 1801년까지 적어도 세 차례 진행되었다. 특히 1801년 조사 사업의 결과로 만들어진 작물 보고서(crop returns)는 그 범위와 체계성에 있어서 다른 조사들에 비해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sup>3)</sup>

하지만 1801년 작물 보고서가 편찬된 직후부터 이 보고서에 들어있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듬해 검증을 위해 이 보고서를 농업 위원회(the Board of Agriculture)에 보냈고 지극히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특정 교구에 관한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참석 위원들은 이 보고서가 심히 오류투성이라 어떤 곡물이

2) Joanna Innes, “Power and Happiness: Empirical Social Enquiry in Britain, from ‘Political Arithmetic’ to ‘Moral Statistics’”, in Joanna Innes ed., *Inferior Politics: Social Problems and Social Policies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Oxford, 2009, pp. 154~161.

3) 1801년 작물 보고서에 담긴 지역은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의 약 50%에 이른다. 물론 각 카운티마다 큰 편차를 보여 이 보고서에 75%이상의 지역이 포함된 카운티는 12개이며 25%이하의 지역이 포함된 카운티는 13개였다. Michael Turner, “Arable in England and Wales: estimates from the 1801 Crop Return”,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7, 1981, p. 291.

파종된 땅이든 그 면적과 관련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이 보고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다소 지나치게 가혹하고 선급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 보고서는 1세기 이상 무관심속에 방치되어 있었다.<sup>4)</sup>

1801년 작물 보고서가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49년 호스킨스의 레스터셔(Leicestershire) 연구 덕분이다. 그는 연구를 통해 이 보고서가 얼마나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다.<sup>5)</sup> 이후 이 보고서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어지면서 보고서가 가진 잠재력이 새삼 주목받기 시작했다.<sup>6)</sup> 최근 들어 1801년 보고서를 활용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18세기 영국의 농업 생산력 증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각광받고 있다.<sup>7)</sup>

- 
- 4)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p. 40.  
 5) W. G. Hoskins, “The Leicestershire crop returns of 1801”, *Transactions of the Leicestershire Archaeological Society*, Vol. 24, 1949, pp. 127~153.  
 6)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David Williams, “The acreage returns of 1801 for Wales”, *Bulletin of Board of Celtic Studies*, Vol. 14, 1950-1, pp. 54~68, 139~154; K. G. Davies and G. E. Fussell, “Worcestershire in the acreage returns for 1801”, *Transactions of the Worcestershire Archaeological Society*, Vol. 27, 1951, pp. 15~23; H. C. K. Henderson, “The 1801 crop returns for Wiltshire”, *Wiltshire Archeological Society and Natural History Magazine*, Vol. 54, 1951, pp. 85~91; “The 1801 crop returns for Sussex”, *Sussex Archeological Collections*, Vol. 90, 1952, pp. 51~59; R. A. Pelham, “The agricultural geography of Warwickshire during Napoleonic Wars”, *Transactions of the Birmingham Archeological Society*, Vol. 68, 1952, pp. 89~106; “The Agricultural Revolution in Hampshi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creage Returns of 1801”, *Proceedings of Hampshire Field Club and Archaeological Society*, Vol. 18, 1953, pp. 139~153; P. A. Churley, “The Yorkshire crop returns of 1801”, *Yorkshire Bulletin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Vol. 5, 1953, pp. 179~197.  
 7) Michael Turner,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Eng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Evidence from Crop Yields”, *Economic History Review*, Vol. 35, 1982, pp. 489~510; “English Open Fields and Enclosures: Retardation or Productivity

하지만 1801년 작물 보고서가 카운티 별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아하게도 지역사 특히 카운티를 기본 단위로 하는 연구에서 아직 그 쓰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지역사 연구는 다루는 지역을 지형적 혹은 사회경제적으로 구분하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 작업은 대체로 실증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두기 보다는 당대 관찰자들이나 심지어는 연구자의 개인적 인상에 기반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1801년 작물 보고서의 가치를 재고하면서 동시에 지역사 연구에서 이 보고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 하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 연구자들에게 드리는 일종의 제언이 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것은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자료를 피상적으로 분석하여 농업적 실상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경제적 양상까지도 읽어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작물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제공한 18세기 말 위기를 다룬다. 두 번째 부분은 위기로 촉발된 조사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 부분은 1801년 작물 보고서를 가지고 어떠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가를 선보이며 이를 위해 체셔(Cheshire)의 사례를 가지고 왔다.

---

Improvement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1, 1986, pp. 669~692; Michael Turner, J. V. Beckett, and B. Afton, “Taking Stock: Farmers, Farm Records, and Agricultural Output in England, 1700-1850”, *Agricultural History Review*, Vol. 44, 1996, pp. 21~34; Stephen Broadberry, B. M. S. Campbell, Alexander Klein, Mark Overton and Bas van Leeuwen, *British Economic Growth, 1270-1870*, Cambridge, 2010.

## II. 위기의 1790년대

1790년대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흉년과 그에 따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었다. 여름내 지속된 심각한 가뭄과 고온 그리고 18세기 내 세 손가락 안에 꼽혔던 강력한 겨울 추위로 1794년과 1795년 수확은 그야말로 재난에 가까웠고 이로 인해 곡물가는 급등하기 시작했다.<sup>8)</sup> 1794년 1 퀴터(Imperial quarter: 약 12.7kg)당 52실링이었던 밀 가격이 1795년 75실링으로 오르더니 1796년에는 78실링에 이르렀다.<sup>9)</sup> 1800년 흉년은 이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불러왔다. 1799년 하반기에는 유독이나 습한 날씨가 이어졌고 1800년 상반기에는 반대로 가혹한 가뭄이 발생했다.<sup>10)</sup> 이로 인해 곡물 작황은 크게 부진했고 밀 가격은 5년 전 위기 때 보다 더욱 가파르게 올라 1801년 119실링이 되었다.<sup>11)</sup> 사실 이 두 차례의 식량 위기 이전에도 곡물 기근은 심심치 않게 발생했었다. 예를 들어 1765년에서 1792년 사이 28번의 수확 중 절반인 14번은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1795년과 1800년의 위기의 본질은 흉년이 두 해 연속으로 이어졌다는데 있다. 즉 풍작과 흉작이 교차하면 풍작으로 인해 남은 잉여물로 다음해 흉작을 충분히 극복 할 수 있었지만 연이은 흉작은 피할 수 없는 식량 품귀를 불러왔다. 1800년 워릭셔(Warwickshire)에서 중앙 정부로 보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sup>12)</sup> “햇곡식은 수확되어 탈곡 과정을

8) Roger Wells, *Wretched Faces: Famine in Wartime England, 1793-1801*, Stroud, 1988, pp. 36~37.

9) B. R. Mitchell, *British Historical Statistics*, Cambridge, 1988, p. 756.

10) Roger Wells, *Wretched Faces*, pp. 37~39.

11) B. R. Mitchell, *British Historical Statistics*, p. 755.

12) Michael Turner, “Corn Crises in Britain in the Age of Malthus” in Michael Turner ed., *Malthus and His Time*, London, 1986, pp. 117~118.

거치자마자 곧바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3개월은 더 소비되어야 하는 묵은 곡식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다.”<sup>13)</sup>

이와 같은 곡물가 폭등과 식량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은 바로 대규모의 곡물 수입이었다. 실제로 1796년 약 879,000 킬터의 곡물이 영국으로 수입되었고 이에 따라 곡물가는 킬터당 1797년 53실링 그리고 1798년 47실링으로 떨어졌다.<sup>14)</sup> 하지만 당시 영국은 프랑스와 혁명전쟁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의 곡물 무역은 언제나 단절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었다. 특히 1797년 대프랑스 동맹을 이끌었던 오스트리아가 이탈하면서 영국은 홀로 프랑스에 대항해야 했으며 프랑스가 영국해협을 건너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공포가 극에 달하였다. 1806년 대륙봉쇄령 이전부터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대서양과 지중해에서의 영국의 주도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이는 결국 영국의 곡물 수급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sup>15)</sup> 이 같이 불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영국이 1770년대를 기점으로 식량 자급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었다. 1760년 이전 영국의 곡물 수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은 세 차례(1728년, 1729년, 1757년)에 불과했으나, 1767년에는 약 오십만 킬터의 곡물이 수입된 반면 수출량은 오천 킬터에 불과했다. 1790년 이후로도 곡물 수입량이 수출량을 크게 상회했고 1800년, 1801년, 1810년, 1818년에는 수입과 수출의 차이가 백만 킬터를 초과했다.<sup>16)</sup> 분명한 것은 1790년대 당시 영국은 곡물 순수입국으로 전환

13) Parliamentary Papers, Second Report of the Lords Committee on the Dearth of Provisions, 1801, p. 170. 재인용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p. 38.

14)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during the Napoleonic Wars”, p. 36

15) Walter M. Stern, “The Bread Crisis in Britain, 1795-96”, *Economica*, Vol. 31, 1964, pp. 176~177.

되었다는 사실이며, 1795년과 1800년 두 차례의 고난은 수입이 식량 수급에 차지하는 중요성을 드러낸 것인 동시에 곡물 자급력의 약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시켜 준 것이었다.

1790년대 후반 연이어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식량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곡물 품귀 및 곡물가 급등은 단순히 이상 기후에 의한 작황 부진의 결과만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곡물을 거래하는 상인 및 중개업자들에 대한 불신이 있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매점매석을 통해 인위적으로 식량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고 믿었다. 사실 당시 상인들의 활동은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업 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곡물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옥스퍼드셔로 타 지역 상인들이 진출하여 많은 양을 사가는 바람에 곡물가는 급등했고 당연히 지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이는 상인들에게 있어 정상적인 거래였을지 몰라도 지역민들에게는 지역 곡물의 무분별한 유출과 다름없었다.<sup>17)</sup> 아직 ‘도덕경제(moral economy)’적 질서가 작동하고 있던 상황에서 곡물가가 공정 가격(fair price) 수준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지방 유력자들이 다양한 자선사업을 벌여 상당량의 곡물을 사들인 후 시장가 이하로 되팔아 시장 불안과 일반 대중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다.<sup>18)</sup> 도덕경제적 요구와 지배층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걱정은 계속되었고 이는 임금을 인상해 달라는 촉구로 이어졌다. 즉 높은 식량 가격을 감당할 만한 수준의 임금을 달라는 주

16) Michael Turner, "Corn Crises in Britain", pp. 113~114.

17) Michael Turner, "Corn Crises in Britain", pp. 123~124.

18) 도덕경제(Moral Economy)와 관련하여 고전이라 불릴만한 글은 E. P. Thompson,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 present* Vol. 50, 1971, pp. 76~136.



장이었다.<sup>19)</sup>

식량 위기로 인해 비롯된 경제적 곤궁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불만은 다양한 형태의 폭동으로 이어졌다. 1795년에서 1796년에는 대략 200건 그리고 1800년과 1801년 사이에는 약 150여 건의 폭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sup>20)</sup> 많은 경우 이 당시의 폭동은 단순히 배고픔과 그에 따른 분노로 촉발된 동물적인 반응이었다기보다는 공동체 내 복잡한 사회 관계망 속에서 행해진 민중들의 영민한 정치 행위의 일환이었다.<sup>21)</sup> 예를 들면 1795년 레스터셔(Leicestershire)의 배로우-어폰-소어(Barrow-upon-Soar)에서는 곡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야심한 밤 밀을 싣고 마을을 떠나 레스터(Leicester)로 향하는 마차를 발견한 마을의 청년들이 곡물 유출에 분개하며 마차를 탈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들은 강탈한 밀을 마을 중심에 위치한 교회로 옮기고 종을 울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이 한 일을 알렸다. 이 곡식을 구입했던 레스터의 제빵업자가 이른 아침 현장에 도착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부디 마을의 빈민들을 위해 일정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되팔아 달라고 부탁했고 손해 보는 차액만큼은 마을 공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치안판사의 중재 하에 마을사람들과 제빵업자 간 협상은 잘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곧 레스터에서 파견된 의용군이 마을로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폭동이 등으로 무장한 마을 사람들과 의용군은 교회마당에서 대치하였고 서로 험한 말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점차 고조되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곡식 중 일부를 마을에 남

19) Michael Turner, "Corn Crises in Britain", p. 123.

20) John Bohstedt, *The politics of provisions: Food riots, moral economy, and market transition in England, c. 1550-1850*, London, 2010, p. 167.

21) John Bohstedt, *Riots and Community Politics in England and Wales, 1790-1810*, Cambridge, 1983.

겨두는 조건으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마을을 떠나는 의용군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기 시작했고 의용군은 이에 맞서 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발생했던 수많은 소요사태 중에 실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후대에 ‘배로우의 도살(Barrow butchery)’로 알려지게 되는 이 사건은 분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소요를 일으킨 이들은 곡물을 강탈한 후 이를 즉각 공표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사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리는 동시에 교회를 자신들의 본거지로 삼음으로써 스스로 떳떳함을 과시했다. 또한 사태 수습을 위해 계속해서 협상과 타협을 이어감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사실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것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sup>22)</sup> 물론 당시에 발생했던 모든 식량 폭동이 계획적이거나 대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맨체스터를 예로 들어보자면,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로 도시 내의 전통적인 질서와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부분 와해되면서 이 도시는 문자 그대로 ‘낯선자들의 도시(city of strangers)’가 되었다. 1795년과 1800년 여러 차례 폭동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치안판사의 중재는 거의 무효하였고 사태는 쉽게 무질서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맨체스터에서의 소요는 협상과 타협을 위한 정치적 혹은 전략적 수단이 아니라 협박과 위협의 장치였다.<sup>23)</sup>

1790년대 식량 위기로 촉발된 전국적인 사회 불안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모두가 적극적인 초지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야기했다. 이들의 조치는 주로 곡물 부족과 곡물가 상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빈곤계층을 위한 것이었다. 1795년 5월 버크셔(Berkshire)의 치안판사들과 유력가들이 스피햄랜드(Speenhamland)에 모여 빈민들이

22) John Bohstedt, *Riots and Community*, pp. 1~3.

23) John Bohstedt, *The politics of provisions*, pp. 200~201.

겪고 있는 전례없는 고난에 대해 논의했고 일종의 차등적(sliding-scale) 임금보조정책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빵 가격과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최소 수준의 생활비를 산정하고 실직이나 저임금 등으로 이 최소 수준의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가정에게 그 부족분만큼을 교구 재정에서 보조해주는 것이었다. 이 정책은 이후 빈민법 개혁 혹은 폐지론자들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지만 잉글랜드 각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sup>24)</sup> 중앙 정부에서도 당시 수상이었던 윌리엄 피트(William Pitt)의 주도하에 빈민법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과감한 시도가 기획되었다. 이때 추진되었던 법안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가족 수당 신설, 기술학교 건립, 농민들에게 가축과 같은 기본 자본재 구입 지원, 황무지 개간, 정주법 완화, 우애조합(friendly societies) 구성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대담한 법안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제 법률로는 제정되지 못하였다.<sup>25)</sup> 사회 취약계층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가 생겨났다. 프레더릭 이든(Frederick Morton Eden)의 『빈민들의 처지(the State of the Poor)』는 이러한 당대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한 결과물 중 하나였다. 이 책에서 이든은 186개의 교구를 조사하였고 여기에 살고 있던 노동빈민들의 삶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였다.<sup>26)</sup>

24) Anthony Brundage, *The English Poor Laws, 1700-1930*, Basingstoke, 2002, pp. 28~29.

25) J. R. Poynter, *Society and Pauperism: English Ideas on Poor Relief, 1795-1834*, London, 1969, pp. 62~65; Gertrude Himmelfarb, *The Idea of Poverty: England in the Early Industrial Age*, New York, 1985, pp. 74~75.

26) Frederick Morton Eden, *The state of the poor*, Vol. 1-3, London, 1797; Joanna Innes, "Power and Happiness", pp. 170~171.

### Ⅲ. 작물 조사 사업과 그 결과

두 차례의 곡물 위기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재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전국적인 작물 조사 사업은 사실 일개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은 당연히 아니었다. 하지만 일찍이 흉년이 들었을 때마다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상세한 통계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이들은 존재했으며 이 중 몇몇은 실제로 자료 수집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러한 분위기는 17세기 중반부터 감지되었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아서 영(Arthur Young)이 있었다.<sup>27)</sup> 1784년 영의 『농업연보(Annals of Agriculture)』가 처음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보는 기본적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던 영의 정보원들이 보고한 각 지역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1795년 초 영 역시도 당시 흉작을 인지하였고 기존보다 더 구체적인 설문을 만들어 각지로 보내 전국적인 상황을 파악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보에 수록했다.<sup>28)</sup> 그의 이러한 선도적인 활약은 중앙 정부의 조사 사업에 중요한 영감과 선례를 주었을 것이다.

1795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앙 정부도 직접 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수확이 끝난 직후인 10월말 내무 장관(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Affairs)이었던 포틀랜드 백작(the duke of Portland)은 각 카운티 지

27) 18세기 전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을 들 수 있다. John Graunt and William Petty,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Mentioned in a Following Index, and Made Upon the Bills of Mortality*, London, 1662; Gregory King,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Upon the State and Condition of England*, London, 1696.

28) Arthur Young, *Annals of Agriculture and Other Useful Arts*, Vol. 24, London, 1795.

사들(Lords Lieutenant)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각 지사들은 “본인 카운티에서 최근 생산된 몇 가지 곡물 작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올해 생산량을 “평년 생산량 그리고 1794년 생산량과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사들은 카운티 내 치안판사들과 협력하여 정보를 생산해 내었다.<sup>29)</sup>

긴급한 사태를 맞아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았던 1795년 조사는 여러 한계를 드러내며 이후 사업의 반면교사가 되었다. 우선 버크셔 지사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오류나 누락에 대한 아무런 강제 혹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치안판사들의 성실도나 능력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철저한 현장 조사에 기반을 두기보다는 어설픈 추정에 근거할 것일 수 있었다. 두 번째 중앙 정부에서 하달한 질문이 그 자체(“카운티에서 최근 생산된 몇 가지 곡물 작황”)로 매우 모호하여 조사를 진행했던 각 개인들의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보고 형식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곡식의 에이커 당 생산량이 기재된 반면 다른 경우는 단순히 총생산량만을 적시했다. 혹은 다소 예외적으로 생산량을 수치로 기록하지 않고 “밀, 작년보다 못함”, “보리, 작년보다 나음” 등 단순 묘사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조사의 단위 또한 일관적이지 못해 어떤 보고서는 교구나 헥트레드를 기준으로 작성된 반면 다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별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수의 농민들이 본 조사가 징세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의심하여 의도적으로 생산량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도 존재했다. 결국 정부는 수집된 보고서의 정보가 상당부분 부정확하고 그 형식 또한 중구난방이라 이를 취합하여 분석하거나 서로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sup>30)</sup>

29) Michael Turner,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England”, p. 493.

1798년 중앙 정부는 또 한 번의 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이 조사는 작황 부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잉글랜드 본토 침략이 곧 단행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부는 해안지역에서의 대대적인 철수를 염두에 두고 해안에서부터 12마일 내에 위치한 교구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사들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조사를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보고서 형식을 제공했으며 이 형식에 따르면 교구 별로 소, 말, 돼지, 양 등 가축의 두수와 곡물을 포함한 여러 작물들이 파종된 면적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1798년 조사 사업은 직전의 선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조사 범위도 확장되어 곡물 뿐 아니라 콩류나 감자와 같은 다른 작물들 그리고 사육하는 가축의 수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하지만 1798년 조사 보고서는 현재 그 전체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에섹스, 서섹스, 도싯 그리고 남부 글로스터셔 일부와 관련된 부분만이 전해지고 있다.<sup>31)</sup>

또 한 번의 거대한 식량 위기가 닥친 1800년, 중앙 정부는 세 번째이자 가장 진지한 작물 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프랑스와의 전쟁이 지겹게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의회 내에서도 곡물가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생활비 급등이 불러올 재앙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 위원회가 구성되어 1800년과 1801년, 각각 6차례 그리고 7차례에 걸쳐 의회 보고가 이루어졌다.<sup>32)</sup> 위원회는 각 지방 명사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곡물 부족이 전국적인 문제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물 수입을 최대치로 끌어 올렸음에도 곡물가의 오름세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 위원회는 본인들의 조사를 통해 얻은 결론이 현재 위기 상황을 타계할 현실적인 방책을 제시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sup>33)</sup> 이는 곧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 사업이

30)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pp. 33~35.

31)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p. 36.

32) W. G. Hoskins, "The Leicestershire crop returns", p. 129.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01년 추수가 끝나자마자 포틀랜드 백작에 이어 내무 장관에 오른 펠 햄경의 주도하에 전국적인 조사 사업이 착수되어 인쇄물 형식의 질문지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의 27개 주교구의 주교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주교들은 다시 이 질문지를 지역 교구 성직자들에게 전파하여 작성케 했다.<sup>34)</sup> 이는 기본적으로 치안판사와 교구 관리들을 중심으로 작성하던 전례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다 체계가 잘 잡혀있던 교회 조직을 활용하여 보고서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추측된다. 이 질문지에 따라 성직자들은 작년 추수 이후 밀, 보리, 귀리, 감자, 콩류, 순무 등이 경작된 땅 면적을 에이커 단위로 보고해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현 상황에 대한 총론을 추가해야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다시 주교를 거쳐 내무 장관에게 전달되었다.<sup>35)</sup>

이렇게 수집된 결과 피터버러(Peterborough) 주교를 제외한 모든 주교구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보내왔고 이를 기반으로 1801년 작물 보고서가 완성되었다.<sup>36)</sup> 물론 주교구들 각자의 관할에 있는 모든 교구의 정보가 수집되었던 것은 아니며 분명 단일한 주교구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제출된 정보의 양과 질은 차이가 컸다. 이러한 지역 차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담긴 교구의 수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5,000개 이상이며 그 중 총론을 작성한 교구는 거의 2,800개에 이른다.<sup>37)</sup> 이 보고서의 범위는 전

33)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p. 39.

34) H. C. K. Henderson, "Agriculture in England and Wales in 1801",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18, 1952, p. 338.

35)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p. 40.

36) 1801년 작물 보고서는 현재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져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https://doc.ukdataservice.ac.uk/doc/5156/mrdoc/pdf/guide.pdf> 참조 (최종접속: 2023년 11월 10일).

37) 답안을 보내온 지역의 분포도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H. C. K. Henderson,

례가 없을 정도로 넓은 것이었으며 개별 교구 단위로 조사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었다.<sup>38)</sup>

1801년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영국의 경작지 규모를 예측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작물별 경작 현황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잉글랜드의 경작지는 전체 토지에 21.2%(약 6,676,000에이커) 이었고 반면 웨일즈의 경우는 10.2%(약 519,000에이커)이었다. 그리고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합한 수치는 약 19.4%였다. 경작 규모 기준 잉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은 밀이었다. 이 보고서에서 조사된 전체 경작지 중 약 33%는 밀, 26%는 귀리, 19%는 보리가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잉글랜드 전역에서 밀을 가장 많이 재배했던 것은 아니다. 중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귀리가 그리고 러틀랜드(Rutland)와 노퍽(Norfolk)지역에서는 보리가 1위 작물이었다. 사실상 단일 작물이 경작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세 곡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기타 작물에 비해 월등했다는 점이다. 기타 작물 중 콩류를 많이 재배한 곳은 중부의 헤리퍼드(Hereford)에서 서퍽(Suffolk)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버크셔(Berkshire)에서 헌팅던셔(Huntingdonshire)까지의 지역이었다. 그리고 뿌리 작물 중 순무는 노섬벌랜드(Northumberland)에서 노퍽에 이르는 동부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었다. 웨일즈 지역도 잉글랜드와 마찬가지로 밀, 귀리, 보리 세 가지 곡물이 가장 많은 경작지를 점유하고 있었다. 오직 메리오네스(Merioneth)지역에서만 감자가 가장 많이 경작되는 작물이었다. 하지만 웨일즈에서는 잉글랜드에서와 달리 밀이 가장 중요한 곡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귀리가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곡물로서 전체 경작지에 약 38%를 차지하고 있었고 밀

---

“Agriculture in England”, p. 339.

38) Michael Turner,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England”, pp. 497~498.



은 29%를 차지하고 있던 보리보다도 적은 22%를 점유하고 있었다.<sup>39)</sup>

사료로서 1801년 작물 보고서가 가지는 중요성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기존의 보고서들을 크게 뛰어넘는다. 하지만 이 보고서 역시 분명한 한계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만들어졌던 보고서들과 1801년 보고서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점으로 이는 1801년 보고서가 수확량이 아닌 경작지의 면적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지역 보고서는 예외적으로 작물별 경작 규모와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 1801년 보고서와의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드문 예이다. 따라서 1801년 보고서와 앞선 시기의 보고서를 가지고 시간에 따른 작물별 수확량 혹은 경작 면적의 증감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sup>40)</sup> 두 번째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 1801년 보고서에 들어있는 정보 자체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농민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정확한 경작 면적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다. 특히 지역 성직자가 이를 조사한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농민들은 성직자들이 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십일조를 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다수의 농민들은 경작량을 축소 보고 해야 할 동기가 충분했던 것이다. 실제 데번(Devon)지역에서 올라온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던 성직자들은 경작 규모를 밝히는데 소극적인 농민들의 모습을 아주 쉽게 목격했다고 한다.<sup>41)</sup> 마지막으로 1801년 보고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801년은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곡물 특히 밀의 가격이 폭등했던 해였다. 적지 않은 농민들이 높아진 밀 가격에 자극을 받아 기존에는 다른 작물을 파종했던 땅에 밀을 심었을

39) Michael Turner, "Arable in England and Wales", pp. 293~298.

40) W. E. Minchinton,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p. 41.

41) W. G. Hoskins, "The Leicestershire crop returns", pp. 128~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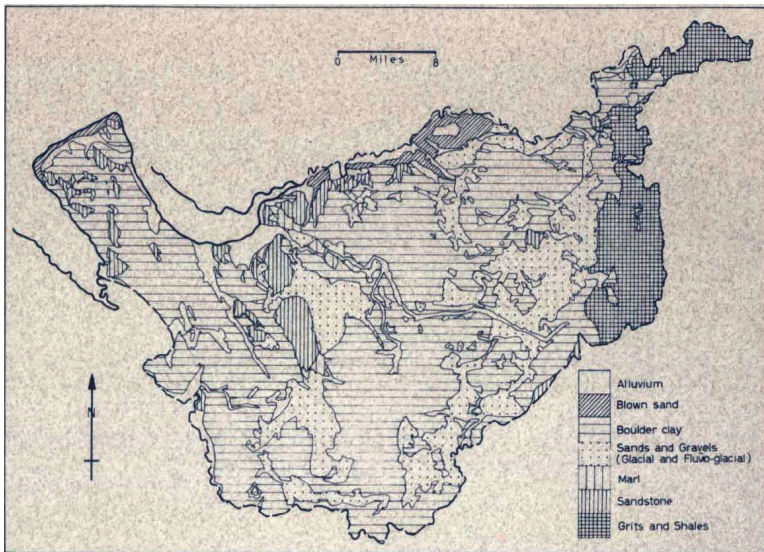
가능성이 있다. 환언하면 1801년 보고서에는 밀을 경작한 토지의 양이 평년에 비해 과대 산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밀의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밀 경작지의 비율도 1801년 보고서에 집계된 것보다 적어지게 될 것이다.

#### IV. 작물 보고서 활용 방안과 그 유용성 - 체셔(Cheshire) 사례 -

1801년 작물 보고서는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역사사료서의 가치가 확실하다. 특히 지역사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에게 그 유용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지역사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지역의 지리 및 지형에 대한 묘사와 환경적 혹은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구분을 시작점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와 구분은 대체로 당시 여행자들이나 조사관들의 주관적 관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피상적인 접근은 정밀함을 요하는 미시적 연구에서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사료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구를 기본 단위로 작성된 1801년 작물 보고서는 분명히 주목받을 만하다. 본 장은 체셔의 사례를 통해서 1801년 보고서의 활용도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체셔의 기본적인 지형과 지질학적 그리고 사회경제학적 특징을 알아보고 1801년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보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한다. 체셔의 농업은 인접한 리버풀(Liverpool)과 맨체스터(Manchester) 등 급성장하는 산업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정 부분 기존의 전통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은 본 연구에서 체

셔를 다루는 핵심적인 이유이다.

체셔는 잉글랜드 북서부에 위치한 카운티로서 동부의 높은 페나인 산맥(the Pennines)을 시작으로 중부의 넓고 평평한 체셔 평원을 가로질러 대서양을 면하고 있는 서부의 위털반도(Wirral Peninsula)에 이르는 지형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선명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체셔의 동쪽 경계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어 '잉글랜드의 척추'라 불리는 페나인 산맥과 그 주변 지역은 1,000피트(약 305m) 이상의 고지대로 전반적으로 자갈과 모래 등 척박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 반면 체셔 중부에는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으며 그 중앙에는 남북으로 뻗은 체셔 산맥(Mid-Cheshire Ridge)이 형성되어 있다. 체셔 산맥의 높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500피트 내외로 주로 사암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산맥의 동쪽과 서



〈그림 1〉 체셔의 지질학적 분포

출처: R. E. Porter,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Liverpool, 1974, p. 28.

쪽 평원은 점토층으로 이루어져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다. 그리고 체셔의 서쪽 끝에 위치한 위털반도는 중부평원과 유사한 지질학적 특징을 보이며 넓은 점토층을 가지고 있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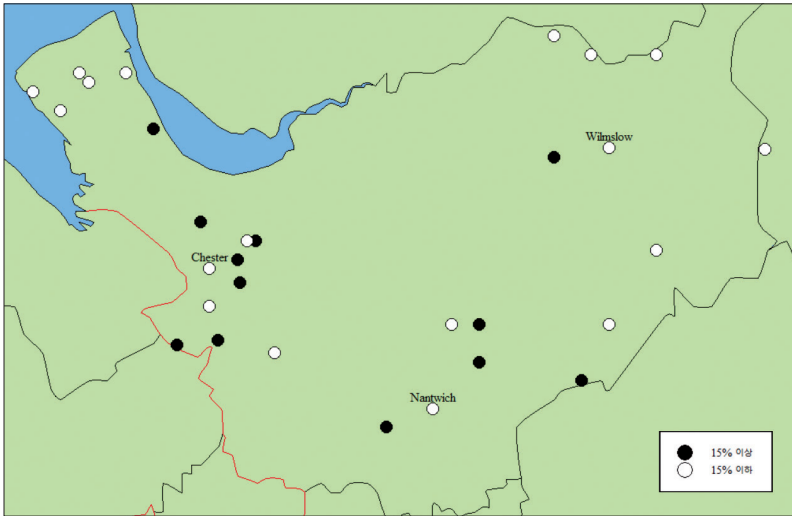
1801년 작물 보고서에 담긴 체셔의 교구 수는 30여개로 다른 카운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sup>43)</sup> 하지만 수록된 교구가 체셔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이 보고서의 가치와 효용을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체셔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점은 이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곡물이 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곡물 경작지 중 밀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미치지 못했던 반면 귀리의 비율은 약 55%에 달했고 나머지 5-6%는 보리가 차지했다. 일반 민중들의 식생활을 다룬 기존 사회사 연구들은 잉글랜드 남부지방에서는 밀을 잘 정제해서 만든 흰 빵이 주식이었으나 북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거친 귀리나 보리와 같은 잡곡으로 만든 갈색 빵을 주로 먹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sup>44)</sup> 따라서 북서부에 위치한 체셔에서 귀리가 밀보다 많이 경작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연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주로 이 든이나 영과 같은 당대 명사들의 관찰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1801년 보고서에 들어있는 양적자료를 통한 재증명은 분명 의미가 있다. 1801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체셔 내 귀리의 우세는 1750년대 이후

42) R. E. Porter,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Liverpool, 1974, pp. 29~34.

43) 햄프셔는 1801년 보고서에 상대적으로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 받는 카운티로 약 150개의 교구가 이 보고서에 담겨있다. Myungsu Kang, "Workhouse Ecologies: Hampshire Case Studies, c. 1776-1845", DPhil thesis, Oxford, 2023, p. 26.

44) Joan Thirsk, *Food in Early Modern England: Phases, Fads, Fashions 1500-1760*, London, 2006, pp. 216~220; Sara Horrell and Deborah Oxley, "Hasty pudding versus tasty bread: regional variations in diet and nutritio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Local population studies*, Vol. 88, 2012, pp. 9~30.

잉글랜드 북부에서도 점차 잡곡빵을 대신해서 밀가루 빵이 주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랜들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sup>45)</sup>



〈그림 2〉 곡물경작지 비율

위 지도는 1801년 작물 보고서에 정리된 체셔 교구의 전체 토지대비 곡물(밀, 보리, 귀리) 경작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는 1801년 보고서를 통해 체셔의 지질학적 특징이 농업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체셔의 동부지역에 15%를 밑도는 경작지 비율을 가진 교구가 몰려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체셔의 동쪽 가장자리를 지나고 있는 페나인 산맥과 그 주변지역의 토질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지대 산악지역으로 비옥

45) Adrian Randall, *Riotous Assemblies: Popular Protest in Hanoverian England*, Oxford, 2006, p. 213; Carl Griffin, *The Politics of Hunger: Protest, Poverty and Policy in England, c.1750-c.1840*, Manchester, 2020, pp. 90~91.

한 토지를 가지지 못했던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곡물 경작은 이루어질 수 없었고 대신 목축업이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sup>46)</sup> 반면 곡물농사에 15%이상의 토지를 할애하고 있는 교구 대부분은 체셔 중부 평원 지대에 퍼져있었다. 체셔 내에서 상대적으로 곡물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이 농업에 적합한 땅이 많이 분포해있던 중부 평원이라는 사실은 토양학적 특징과 경제 구조 사이의 상관성이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또 다른 점은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교구들이 상대적으로 곡물을 많이 경작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중 30%이상의 토지를 곡물 농사에 투여했던 경우는 없었다. 농업이 발달했던 남부 카운티들과 비교하면 이는 분명 낮은 수치였다. 예를 들어 남부 햄프셔에서 곡물 경작지 비율이 30%가 넘었던 교구의 수는 32개로 1801년 보고서 담긴 햄프셔 교구 중 1/4 이상이었다.<sup>47)</sup> 타 카운티와의 비교했을 때 체셔 교구의 곡물경작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유는 그나마 곡물 농사에 유리했던 평원지역에 이미 낙농업이 발달했었기 때문이다. 치즈를 비롯한 체셔 평원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낙농제품은 전국적으로 높은 유명세를 가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핵심 수입원이었다.<sup>48)</sup> 따라서 땅을 경작지로 일구기보다는 젖소 사육을 위해 초원으로 가꾸는 일이 흔했던 것이다.<sup>49)</sup>

곡물경작지가 15% 이하인 교구가 몰려있는 체셔 북서부의 위털 반도

46) R. E. Porter,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p. 128; Joan Thirsk, *Agricultural Regions and Agrarian History in England, 1500-1750*, Basingstoke, 1987, pp. 51-53.

47) Myungsu Kang, "Workhouse Ecologies", pp. 26-27.

48) R. E. Porter, "The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e in Cheshir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Historic Society of Lancashire and Cheshire*, Vol. 126, 1979, pp. 141-143; C. B. Phillips and J. H. Smith, *Lancashire and Cheshire from AD 1540*, New York, 1994, pp. 78-82.

49) R. E. Porter,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pp. 269-273.

지역은 1801년 작물 보고서가 단순히 지질학적 특징의 결과만은 아니며 사회경제적 요소 또한 반영된 것임을 시사한다. 위털 반도의 토양은 체서 평원과 유사하여 곡물을 경작하는데 불리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 하지만 위 지도에서 볼 수 있듯 이 지역의 교구 다섯 곳 모두가 곡물 농사에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오버처치(Overchurch)와 우드처치(Woodchurch) 두 교구의 곡물 경작지는 채 10%를 넘지 못했다. 이 지역에서 곡물 농사가 부진했던 이유는 리버풀이라는 신흥 대도시에 인접해 있던 지리적 여건에 있었다. 리버풀은 이미 19세기 초 영국의 핵심 항구로 성장해 있었고 무역량 역시도 급격히 상승하여 1857년경에는 영국 전체 무역량의 45% 가량을 차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도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인구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여 1801년 77,653명이었던 것이 1841년에 오면 223,003명이 되었다.<sup>50)</sup> 리버풀과 마주 보고 있는 위털 반도의 사회경제적 구조는 리버풀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위털 반도 내 교구 중 하나인 버컨헤드(Birkenhead)는 리버풀을 왕래하는 정기선 운행이 시작됨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1801년에서 1841년 사이 인구가 110명에서 8,000명으로 증가했다.<sup>51)</sup> 리버풀의 배후지로서 위털 반도의 농업은 도시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채소와 과일을 기르는 원예농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채소와 과일은 정기선에 실려 대도시로 운송되었다.<sup>52)</sup> 또한 이 지역에서 감자 농사도 점차 확대되어갔다.<sup>53)</sup> 1801년 보고서에 따르면 웨스터 커비(West Kirby)는 95 에이커의 땅을 감자를 경작하는데 사용했고 이는 보리가 파종된 85 에이커보다도 많은 것이었다. 이렇

50) R. E. Porter,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p. 20.

51) R. E. Porter,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p. 19.

52) R. E. Porter, 'The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e', pp. 147~148.

53) R. E. Porter,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p. 242.

게 감자가 각광을 받았던 것은 단위면적 대비 인구부양력이 높은 감자가 대도시에서 노동자들의 주식으로 대두했기 때문이었다.<sup>54)</sup> 결국 위털 반도의 농업은 도시민들의 필요에 맞춰짐에 따라 곡물보다는 원예나 구황작물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 V. 나가며

1795년과 1800년의 곡물 부족사태와 이에 따른 곡물가 등귀로 영국 전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미 18세기 중반이후 식량자급을 사실상 포기한 영국은 식량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입을 더 늘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식량수입 확대는 사후조치에 불과했으며 곡물 위기 직후 발생한 사회 분란과 소요는 불가피했다. 이 시기 전국적으로 수백 회의 소요 혹은 폭동이 보고되었고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불안을 달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해야만 했다. 지방에서는 스피햄랜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임금보조정책이 확산되었고 중앙에서는 빈민문제 전반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처한 위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져갔다.

1795년 흉작 이후 중앙 정부 주도의 조사 사업이 즉각적으로 단행되었다. 이미 아서 영과 같은 인사들은 농업 관련 통계조사 사업을 진행했다.

---

54) Joan Thirsk, *Food in Early Modern England*, pp. 179~182; Craig Muldrew, *Food, Energy and the Creation of Industriousness: Work and Material Culture in Agrarian England, 1550-1780*, Cambridge, 2011, pp. 108~109.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조사는 분명 정부 사업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1795년에 진행된 조사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것이었고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했다. 당초에 중앙 정부의 명료한 지침도 형식도 없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온 답은 조사원의 이해도 혹은 성실도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1798년에 시행된 조사 사업은 프랑스의 본토 침략이라는 위기의 산물이었다. 전쟁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조사였던 만큼 조사 품목은 곡물과 더불어 가축에 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침략이 우려되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자료의 양이 매우 적은 편이다. 1800년 또 한 번의 곡물 위기로 탄생하게 된 1801년 작물 보고서는 기존의 조사들 보다 높은 완성도를 추구했다. 우선 지방에 배포할 인쇄물 형식의 질문지를 만들었음은 물론 조사의 주체를 기존 지방 관료에서 성직자들로 변경하여 종교 기관의 체계적인 조직을 활용하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1801년 보고서가 포괄하는 지리적 범위는 기존보다 크게 확장되었고 교구라는 구체적인 조사 단위를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보고서의 일관성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다시 말해 몇 가지 한계와 오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801년 보고서는 분명 높은 사료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체서는 1801년 작물 보고서의 정확성은 물론 지역사 연구에 전폭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하는데 적합한 사례이다. 지형적으로 체서는 동부에는 산악지역 중부에는 드넓은 저지대 평원 그리고 서부에는 리버풀과 이웃한 반도로 이루어졌다. 1801년 보고서에 기록된 곡물 경작지의 비율을 계산하여 체서의 지형 구조에 대입해보면 꽤 납득할 만한 결과가 도출된다. 동부의 고지대 모든 교구에서 곡물 경작지 비율이 15%이 하였던 것에 반해 중부 평원지대는 많은 수의 교구가 15%이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보고서에 담긴 데이터의 신뢰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동시에 예외적인 현상도 목격된다. 서부의 반도는 지질적으로 평원과 같은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곡물 경작율이 낮았다. 사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변 대도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반도 지역에서는 곡물 농사 보다는 도시에서 수요가 높은 원예작물이나 감자를 많이 재배하였다. 이러한 간단한 사례분석만으로도 우리는 1801년 보고서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농업 패턴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포괄적인 사회경제적 양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801년 보고서는 지역사 연구에 실증적인 자료로서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23.11.13. 투고 / 2023.12.10. 심사완료 / 2023.12.14. 게재확정)

[Abstract]

**Compilation and Utilization of Crop Returns in Britain,  
1795-1801**

Kang, Myungsu

This paper aims to explain the background and specific methods of compiling crop returns between 1795 and 1801. Furthermore, it seeks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of these returns as valuable primary sources for historians. In the late 18th century, Britain underwent two severe grain crises in 1795 and 1800, causing a sharp increase in grain prices and nationwide turmoil. To address the social unrest,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relief measures such as the Speenhamland system,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pursued a comprehensive legislative reform. In addition to these measures, nationwide crop surveys and the publication of returns were initiated. From 1795 to 1801, the central government conducted survey schemes and compiled returns at least three times. Among them, the 1801 crop returns exhibited the highest level of completeness. The case of Cheshire demonstrates the accuracy of these returns and their potential utility for local studies. The calculated ratio of land under grains based on the data in the returns clearly correlates with the geological distribution of Cheshire. This essentially proves the empirical nature of the returns. However, some exceptional areas are found where grain cultivation did not align with geological features. The existence of such areas

is interpreted not as a simple error in the data but rather as a reflection of the socio-economic context within the county. Therefore, we have confirmed that the 1801 crop returns can not only be utilized to understand the agricultural patterns of specific regions but also encapsulates a more comprehensiv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 Keyword

crop returns, grain crises, increase in grain prices, social unrest, Cheshire

[참고문헌]

1차 문헌

- Parliamentary Papers, *Second Report of the Lords Committee on the Dearth of Provisions*, London, 1801.
- Home Office Domestic Entry Book, 1801, The National Archives, HO 43/13.
- Eden, Frederick Morton, *The state of the poor*, Vol. 1-3, London, 1797.
- Graunt, John and Petty, William,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Mentioned in a Following Index, and Made Upon the Bills of Mortality*, London, 1662.
- King, Gregory, *Natural and Political Observations and Conclusions Upon the State and Condition of England*, London. 1696.
- Young, Arthur, *Annals of Agriculture and Other Useful Arts*, Vol. 24, London, 1795.

2차 문헌

- Bohstedt, John, *Riots and Community Politics in England and Wales, 1790-1810*, Cambridge, 1983.
- \_\_\_\_\_, *The politics of provisions: Food riots, moral economy, and market transition in England, c. 1550-1850*, London, 2010.
- Broadberry, Stephen, Campbell, B. M. S., Klein, Alexander, Overton, Mark and Leeuwen, Bas van, *British Economic Growth, 1270-1870*, Cambridge, 2010.
- Brundage, Anthony, *The English Poor Laws, 1700-1930*, Basingstoke, 2002.

- Churley, P. A., "The Yorkshire crop returns of 1801", *Yorkshire Bulletin of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Vol. 5, 1953.
- Davies, K. G., and Fussell, G. E., "Worcestershire in the acreage returns for 1801", *Transactions of the Worcestershire Archaeological Society*, Vol. 27, 1951.
- Griffin, Carl, *The Politics of Hunger: Protest, Poverty and Policy in England, c.1750-c.1840*, Manchester, 2020.
- Henderson, H. C. K., "The 1801 crop returns for Wiltshire", *Wiltshire Archeological Society and Natural History Magazine*, Vol. 54, 1951.
- \_\_\_\_\_. "Agriculture in England and Wales in 1801", *The Geographical Journal*, Vol. 118, 1952.
- \_\_\_\_\_, "The 1801 crop returns for Sussex", *Sussex Archeological Collections*, Vol. 90, 1952.
- Himmelfarb, Gertrude, *The Idea of Poverty: England in the Early Industrial Age*, New York, 1985.
- Horrell, Sara and Oxley, Deborah "Hasty pudding versus tasty bread: regional variations in diet and nutrition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Local population studies*, Vol. 88, 2012.
- Hoskins, W. G., "The Leicestershire crop returns of 1801", *Transactions of the Leicestershire Archaeological Society*, Vol. 24, 1949.
- Innes, Joanna, "Power and Happiness: Empirical Social Enquiry in Britain, from 'Political Arithmetic' to 'Moral Statistics'", in Joanna Innes ed., *Inferior Politics: Social Problems and Social Policies in Eighteenth-Century Britain*, Oxford, 2009.
- Kang, Myungsu, "Workhouse Ecologies: Hampshire Case Studies, c. 1776-1845", DPhil thesis, Oxford, 2023.

- Minchinton, W. E., "Agricultural Returns and the Government during the Napoleonic Wars", *Agricultural History Review*, Vol. 1, 1953.
- Mitchell, B. R., *British Historical Statistics*, Cambridge, 1988.
- Muldrew, Craig, *Food, Energy and the Creation of Industriousness: Work and Material Culture in Agrarian England, 1550-1780*, Cambridge, 2011.
- Pelham, R. A., "The agricultural geography of Warwickshire during Napoleonic Wars", *Transactions of the Birmingham Archeological Society*, Vol. 68, 1952.
- \_\_\_\_\_ "The Agricultural Revolution in Hampshir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creage Returns of 1801", *Proceedings of Hampshire Field Club and Archaeological Society*, Vol. 18, 1953.
- Phillips C. B. and Smith, J. H. *Lancashire and Cheshire from AD 1540*, New York, 1994.
- Porter, R. E. "Agricultural Change in Cheshir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Liverpool, 1974.
- \_\_\_\_\_, "The marketing of agricultural produce in Cheshire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Transactions of the Historic Society of Lancashire and Cheshire*, Vol. 126, 1979.
- Poynter, J. R., *Society and Pauperism: English Ideas on Poor Relief, 1795-1834*, London, 1969.
- Randall, Adrian, *Riotous Assemblies: Popular Protest in Hanoverian England*, Oxford, 2006.
- Stern, Walter, "The Bread Crisis in Britain, 1795-96", *Economica*, Vol. 31, 1964.
- Thirsk, Joan, *Agricultural Regions and Agrarian History in England*,

- 1500–1750, Basingstoke, 1987.
- \_\_\_\_\_, *Food in Early Modern England: Phases, Fads, Fashions 1500–1760*, London, 2006.
- Thompson, E. P., ‘The moral economy of the English crowd in the eighteenth century’, *Past & present*, Vol. 50, 1971.
- Turner, Michael, “Arable in England and Wales: estimates from the 1801 Crop Return”,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Vol. 7, 1981.
- \_\_\_\_\_,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England in the Eighteenth Century: Evidence from Crop Yields”, *Economic History Review*, Vol. 35, 1982.
- \_\_\_\_\_, “Corn Crises in Britain in the Age of Malthus” in Michael Turner ed., *Malthus and His Time*, London, 1986.
- \_\_\_\_\_, “English Open Fields and Enclosures: Retardation or Productivity Improvement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41, 1986.
- Turner, Michael, Beckett, J. V., and Afton, B., “Taking Stock: Farmers, Farm Records, and Agricultural Output in England, 1700–1850”, *Agricultural History Review*, Vol. 44, 1996.
- Wells, Roger, *Wretched Faces: Famine in Wartime England, 1793–1801*, Stroud, 1988.
- Williams, David, “The acreage returns of 1801 for Wales”, *Bulletin of Board of Celtic Studies*, Vol. 14, 1950–1.